

■ 영화 속의 유대인 ■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는 무엇을 위해 뛰었는가?

윤영휘

I. 영화 <불의 전차>의 문제 제기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두 곡의 음악이 중요하게 소개되었다. 첫 번째 멜로디는 한국의 시청자들도 잘 아는 곡인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 OST>로서, 영국 코미디언 로완 아킨슨(미스터 빈)이 영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오프닝 신인 해변에서의 국가 대표의 달리기 장면을 패러디했을 때 전파를 탔다. 두 번째는 국내에는 잘 안 알려진 노래지만 잉글랜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찬송가인 <예루살렘>이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작사한 이 노래는 “연합왕국”의 어린이들이 나와 자기 지방 대표곡을 부를 때, 잉글랜드 어린이들에 의해 합창되었다. 잉글랜드인들이 우리의 ‘아리랑’ 정도로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영화 속 유대인 주인공의 장례식에서 불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해롤드 에이브라함스(Harold Abrahams)의 장례식에서 성가대가 “우리가 잉글랜드의 푸르고 복된 초원에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까지(Till we have built Jerusalem, in England’s green and pleasant land)라는 유명한 가사로 끝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한다. 첫 번째 OST가 이 영화의 스포츠 무비로서 특징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곡은 어쩌면 에이브라함스가 평생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러나 온전히 가지지 못했던 잉글리쉬니스(Englishness)를 반영하는 장면인 듯하다.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영화 <불의 전차>에는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라는 유대인이 나온다. 이 영화에 대한 해설서들은 대부분 에이브라함스를 반유대주의가 만연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저항하여 유대인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뛰는 선수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해설에서는 에이브라함스의 올림픽 도전도 “주변화 된 타자(marginalized other)”의 대표 격인 유대인이 자신의 유대인성(Jewishness)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되곤 한다. 사실 ‘타자’, ‘주변인’, ‘소외’ 같은 용어들은 그동안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하지만 에이브라함스가 영화 속에서 그리고 역사속에서 실제로 이런 용어들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거의 모든 역사 영화가 그렇듯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전체 사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영화 또한 당시 영국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 있고 보여주지 못하는(않는) 것들이 있다.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명하고 분석해 봄으로서 우리는 영화가 말하려 한 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한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화 속 해롤드 에이브라함스가 당시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말하는 바와 역사 속 에이브라함스의 실제 모습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양자의 차이가 반영하는 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II. 영화 속의 해롤드 에이브라함스

1981년 영국에서 처음 개봉된 영화 <불의 전차>는 개봉당시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끈 영화였다. 1982년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후보에 올라 그중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의상상 4개를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조연상을, 골든 글로브에서 최고 외국 영화상 등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들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 영화는 1999년 영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100대 영국 영화중 19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화에 바탕을 둔 이 영화는 나이 많은 세대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스포츠 영화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영화이다. 이런 유명세 뒤에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젤리스의 OST의 역할도 있겠지만 인종-종교적 요인도 존재한다. <불의 전차>는 미국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인 사회 양쪽에서 주목을

끈 독특한 영화이기도 한데, 이는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의 독특성 때문이었다. 한쪽에서는 신의 영광을 위해 뛰었던 선교사 출신의 에릭 리들 때문에 <불의 전차>가 기독교 영화로 취급되기도 하는 동안,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영화 때문에 유대인 육상 선수 에이브라함스의 행보에 대한 때 아닌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를 둘러싼 유대인 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반영할 뿐 아니라, 영화 <불의 전차> 또한 이런 논쟁의 연장선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에 나오는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유대인 은행가 집안 출신으로, 명문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에 입학한 유대인이다. 케임브리지의 친구들은 그와 비슷하게 사립학교 교육을 받아 옥스브리지에 입학한 “주류” 영국인들이었지만, 그는 비슷한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과 다를음을 느낀다. 이런 그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종종 호전적 태도로 나타나곤 한다. 영화에서는 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의 이름(유대인성이 드러나는)을 물어보는 기숙사 사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귀족 집안 출신 친구 오드리 몬타규(Aubrey Montague)에게 “분노, 고통, 굴욕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스스로 예민한 탓으로 돌린 적도 있지만 사람들의 냉대를 받을 때면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에이브라함스는 미래의 부인이 되는 오페라 가수 시빌 고든(Sybil Gordon)과의 첫 만남에서 유대인으로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설명해 주는데, 그에게 그것은 마치 “물가에 세워놓고 물은 못 마시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처럼 영화 <불의 전차>에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극복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에이브라함스의 좌절감이 반복되어 표현된다. 에이브라함스는 개인 코치를 고용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비방하는 교수들 앞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케임브리지 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인”이라고 소리친다. 교수들은 본래의 용건에 치중할 뿐 이 말에는 특별한 대답도 하지 않지만, 그는 그 방을 나와서 좌절감에 몸부림친다. 그 방의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에이브라함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욕상이었다. 영화 초반에 학교 합창단에 들어간 에이브라함스가 “He is English man”이라는 노래를 열정적으로 독창하는 장면과 그가 열심히 욕상 연습을 하는 장면이 오버랩 되는데, 이를 통해 영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유대인에게 달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은연중에 강조한다. 그에게 달리기는 자신을 향해 영국인들이 세운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영화 초반에 에이브라함스는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다 끝나기 전에 대학 내 정원을 한 바퀴 뛰어오기에 도전하는데 이는 700년 전에 누군가 성공한 것이 마지막일 정도로 어려운 도전이었다. 처음엔 “이스라엘을 위해 뛰어보라”고 누군가 놀렷지만, 그가 실제로 이 일을 해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에게 환호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동료 학생들의 환호성 속에 에이브라함스는 잠시나마 종전의 놀림을 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영화 속에서 에이브라함스는 에릭 리들(Eric Liddell)과의 일전에서 패배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 한번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극복하는데 또다시 실패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의 전차>에서 그의 유대인성은 그를 끊임없이 뛰게 만드는 원인이자, 동시에 계속해서 좌절 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런 에이브라함스에게 1924년 파리 올림픽은 오랜 갈등과 도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무대로 여겨졌다. 이 장면에서 에이브라함스는 올림픽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로 그려진다. 아직까지 아마추어리즘이 숭고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게 그는 프로 트레이너 샘 무사비니를 개인 코치로 고용하며 올림픽을 목표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 특히나 무사비니가 아랍계 이탈리아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담당 교수들은 거부감을 표하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비난쯤은 거뜰히 감내한다.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파리까지 따라간 무사비니 코치의 전적인 지원 속에 에이브라함스는 결국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욕상 100미터 결승에서 우승하게 된다. 그의 메달 획득이 평생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 주었을까? 반유대주의적 편견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지배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렸지만, 결국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던 반복은 끊기게 된 것인가? 영화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지만 필름 속 분위기는 분명 무언가를 이야기 한다. 슬로우 모션과 함께 반젤리스의 OST가 울려 퍼져 승고하게까지 보이는 리들의 우승 장면과 달리 에이브라함스가 결승선을 끊을 때는 단음의 기계음이 반복되어 긴장감이 더해진다. 우승 후 짧은 승리의 세레머니 이후 에이브라함스는 친구들도 말을 못 걸 정도의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며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사라질 뿐이다. 경기 후 파리의 한 카페에서 밤늦도록 에이브라함스와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의 희생자였던 무사비니 뿐이었다. 이런 장면이 더해져 영화에서 그의 우승은 분명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강조되어 읽혀진다. 영화는 그가 증명하고자 했던 바가 이뤄졌는지 이야기하는 대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 우승이 그의 평생의 도전에 명확한 종지부를 찍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영화 속에서 계속 성마름과 초조함이 감지되는 에이브라함스와 달리 또 다른 주인공 에릭 리들은 훨씬 여유롭고 친절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인물들이다. 양자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 사립학교-선교지, 유대교-기독교 등 지역, 출신, 종교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에이브라함스가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싸우는 동안 리들은 전혀 다른 달리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같이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어있던 그의 누이는 달리기 같은 세속적인 일과 신의 영광이 연결될 리 없다며 그의 선수 생활을 반대하지만, 리들은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 속에도 신의 주권이 미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한다. 에릭 리들의 아버지는 그를 지지하는데, 그가 아들에게 하는 조언은 에릭이 달리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감자껍질 하나라도 제대로 벗긴다면 그것이 신께 영광이란다. 타협하지 말고 주를 위해 달려서 주님의 권능을 보여라...” 리들에게 자신을 빠르게 만든 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를 달리게 하는 이유였지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는 그렇게 원하던 파리 올림픽 경기 출전을 포기한다. 경기일이 ‘주님의 날’인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뛰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 때문에 국가대표가 출전을 고사한다는 뉴스는 본국에도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보도되어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일으키는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리들은 왕세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200M 경기 출전을 결국 포기한다. 그러나 그의 뜻에 감동한 동료 선수가 자신은 이미 동메달을 땀다며 출전을 양보함으로써 리들은 극적으로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단거리 선수였던 리들은 이 종목에서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당일 예선에서만 세계신기록이 2번 수립되었던 400M 경기에서 미국의 세계 기록 보유자 찰리 패덕(Charley Paddock)을 제치고 자신이 세상에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을 증명해낸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에이브라함스가 육상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바도 중요하게 그려지나 그림에도 양자가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에릭 리들의 승리이고 이때의 감동은 에이브라함스가 우승할 때의 허탈감과 대조를 이룬다. 영화의 초점은 에이브라함스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도전 보다는 에릭 리들의 종교적 신념에 더 맞추어져 있는 듯하며, 이런 점에서 에이브라함스의 갈등과 도전은 결과적으로 에릭 리들이 달리는 이유를 더 명확히 비추어준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대인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극복하려 달리는 존재이지 이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배세계에 동화될 정도의 적극적인 인물일 필요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유대인 육상 선수 에이브라함스는 여전히 ‘주변인’이자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다.

III. 역사 속의 해롤드 에이브라함스

대부분의 역사 영화가 그렇듯 영화 <불의 전차>도 실존 인물의 모든 면모를 담지는 못한다. 사실 에이브라함스를 억압과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 영국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설명된 것처럼 상당부분 그의 아버지의 재력 때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이작 에이브라함스는 리투아니아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후 고리대금업과 귀금속 매매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런 아이작의 막강한 재력은 해롤드를 비롯한 그의 세 아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달리 사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¹⁾ 해롤드는 렵튼 스쿨(Repton public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191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키스 칼리지(Caius College)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당시 영국 사회의 ‘주변인’으로 여겨지던 유대인들에게 명성 있는 사립학교와 옥스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것은 영국 엘리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몇 개 안되는 최선의 길로 여겨졌을 것이다.

사립학교 교육이 이주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배사회의 주류 속으로 진입시키려는 ‘동화’의 열망을 반영한다면 스포츠는 해롤드 자신의 동화 열망을 촉진하는 요소였다. 사실 이는 에이브라함스 삼형제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이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직업 가졌을 뿐 아니라 대학 시절에는 뛰어난 육상 선수이기도 했다.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는 십대 때부터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자기 주변의 영국 기득권 집안 자제들 사이에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에이브라함스는 학창 시절에 공부보다 스포츠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었다. 그 결과 십대 후반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는데, 1918년에는 퍼블릭 스쿨스 챔피언십(Public Schools Championship)에서 우승하였고, 1921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육상 클럽 회장에 피선되었으며, 옥스브리지와 예일, 하버드 대학 간에 열린 친선 육상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²⁾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파리 올림픽 이전에 이미 영국 육상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1924년 올림픽 우승 이후에는 이주민들에게는 거의 문을 열지 않았던 영국 스포츠계에서도 거물급 인물로 여겨지게 된다.

리처드 홀트 등이 설명한 것처럼 영국에서는 빅토리아시기에 이미 레저의 개념이 생기고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면서 일부 종목, 특히 경보 같은 걷기 운동은 노동계급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1) 에이브라함스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주로 참조. Mark Ryan, *Running with Fire: The Harold Abrahams Story* (London, JR Books, 2011).
2) David Dee, “‘Too Semitic’ or ‘Thoroughly ‘Anglicised’? The Life and Career of Harold Abraha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9: 6, (2012), 874.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트랙에서 진행되는 육상 종목들은 여전히 배타적인 엘리트의 스포츠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노동계급 스포츠가 프로화 되어 사행성 사업 등과 연계되던 것과 달리 여전히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하고 있었다.³⁾ 사실 사립학교 교육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모두에게 신분상승의 요소로 작용했겠지만 에이브라함스의 육상에서의 업적은 그가 다른 “주변인”들과는 달리 이 전통적인 지배계급의 영역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인으로 역할 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렇듯 에이브라함스에게도 반유대주의는 그의 인생 속에서, 특히 젊은 시절에 육상 활동의 중요한 동기로서 역할 하였다. 에이브라함스는 십대 시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강한 열등감을 느꼈고 이는 자신을 좀 더 진지하게 달리게 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⁴⁾ 하지만 이런 인종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에이브라함스가 자신의 유대인성에 더 착념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 인종 정체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격에 직면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성을 지키려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다른 유대인은 자신의 유대인성이라는 갈등요소 자체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택하였다. 에이브라함스도 반유대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육상을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영국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지게 되었다. 이를 반유대주의에 대한 도전 과정 중 우연히 얻어진 결과로 볼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사실 그가 스포츠에서의 도전을 통해 다름 아닌 영국화(Anglicization)를 추구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이 보여준다.

우선 에이브라함스 스스로가 자신의 영국사회로의 동화를 정당화하였다. 그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경우와 같은 동화노력이 엘리트 스포츠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것은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⁵⁾ 에이브라함스는 올림픽 직전인 1923년에 한 유대인 집회에서 “엄격한 [

3) Richard Holt, *Sport and the Brit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chapter 2.

4) Dee, “‘Too Semitic’ or ‘Thoroughly ‘Anglicised’?”, 872.

5) *ibid.*, 876.

유대인의] 종교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운동을 향한 야망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탁월한 선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⁶⁾ 이런 언급은 흔히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뛰었다고 이해되는 에이브라함스에게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이 실제로 얼마큼 중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남긴 다른 글들을 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해진다. 사실 에이브라함스에게 유대인성은 달리게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달리기의 방해 요소에 가까웠다. 1927년 『Jewish World』라는 유대인 저널에 실린 「The Jews in Athletics」라는 글에서 에이브라함스는 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스포츠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지 분석한 적이 있다. 그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이미 “빠른 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 “자기 확신”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공에 더 중요한 것은 “영국화”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의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였고 불행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하였다.⁷⁾ 1925년 다리 골절로 인한 현역 은퇴 후, 에이브라함스는 영국 육상 협회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육상계의 저명인물이 되었고 오랜 시간 그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영국 육상계의 중요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스포츠는 유대인성보다는 동화과정과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당시 사람들도 스포츠를 에이브라함스의 동화된 정체성과 연관 지어 보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영화 <불의 전차>에서 해롤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극복하려 하지만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그려진다. 위에서 설명된 세인트 존스 칼리지 내 정원을 뛰는 경기에서 그는 몇 백 년 만에 신기록을 세우며 동료들의 찬사를 받지만, 이 장면을 보던 대학 교수들은 “역시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군”이라며 그의 유대인성을 더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실제 당시 영국 언론에서 그는 엘리트 교육과 재력을 배경으로 성공한 잉글랜드 스포츠맨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데일리 미러(Daily Mirror)』지는 에이브라함스를 “이 경기(100m)에서 우승한 첫 번째 영국인”으로 소개하면서, 이 “케임브리지 졸업생”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을 뿐 그의

6) Ryan, *Running with Fire*, 82.

7) *Jewish World*, 10 February 1927.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유대인 배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⁸⁾ 당시 영국 유대인 사회에서도 에이브라함스는 영국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된 “영국” 유대인으로 평가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대륙의 유대인 사회와 달리 영국 유대인 사회에서는 영국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영국 사회로의 동화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에이브라함스는 영국화가 스포츠를 포함한 사회 여러 영역에 동화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모델이었다.⁹⁾

에이브라함스의 인생에서 동화된 정체성이 그의 유대인 정체성을 뛰어넘은 상징적 사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영국대표팀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었다. 당시 영국 뿐 아니라 서유럽 사회 여러 곳에서 베를린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각국의 유대인 사회는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에이브라함스의 입장은 상당히 명확하였다. 에이브라함스는 정치가 스포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아마추어리즘을 견지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올림픽 참가를 지지하였다. 이는 당시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과 정치 불간섭주의를 신봉하던 영국 스포츠 엘리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스포츠와 정치 분리 사상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영국 대표팀 참가가 보여주듯이 이때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영국 스포츠 엘리트들의 뿌리 깊은 전통이지 그의 유대인적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산이다. 이후 유대인 사회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다. 에이브라함스는 베를린 올림픽 이슈에 분명 유대인으로서보다 잉글랜드 스포츠맨으로서 접근하였다. 그는 이론적으로만 올림픽 참가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의 해설자로서 또한 영국 육상 협회의 임원으로서 직접 베를린에 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에이브라함스도 당시 독일 유대인의 상황을 알았고 훗날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회고하였지만, 이때 그를 움직인 것은 분명 동화된 영국인의 정체성이었다.

8) Daily Mirror, 9 July 1924. Dee, “‘Too Semitic’ or ‘Thoroughly Anglicised’?”, 874에서 재인용.

9) Dee, “‘Too Semitic’ or ‘Thoroughly ‘Anglicised’?”, 875.

III. 해롤드 에이브라함스-‘유대주의자’인가, ‘주변인’인가, ‘영국화 된 유대인’인가

영화 <불의 전차> 자체도 해롤드 에이브라함스와 당시 유대인에 대한 영국 사회의 시각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나 역사 속의 에이브라함스와 20세기 초반 영국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역사의 균형 잡힌 해석이 요구된다. 사실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발과 영국사회로의 동화 추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 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었다면 영국화 추구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점은 동일해도 그로 인해 자신이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과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배척했던 그 사회로의 동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사실 20세기 초 영국 사회에서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일부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하였고, 다른 일부는 유대인이란 사실에 몰입된 것도 아니었지만 주변에 완전히 동화된 것도 아닌 ‘주변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수는 유대인이란 사실을 벗어나 버리고 지배사회로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쉽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영국 육상계의 중요인물이 된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대인성에 몰입되어 있는 유대인의 전형과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루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통해 배타적이었던 전통 엘리트 사회 안에 진입하고 나중에는 영국 스포츠계의 거물이 되는 매우 예외적인 영국화 된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또한 그 스스로의 언행과 행보로 판단해 보건데, 에이브라함스는 분명 육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영국화를 추구하고 적어도 1936년에 이르면 영국화 된 자아가 유대인으로서 자아보다 더 강해진 인물이었다.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그렇다고 영화가 완전히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불의 전차>는 영국화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아직 반유대주의라는 외적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십대 말부터 이십 대 초반 에이브라함스의 모습을 극적으로 그려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이 영화에서는 에이브라함스라는 인물의 전체 그림의 일부인 ‘주변인’적 면모가 지나치게 두드러진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100M 경기가 열리던 날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는 과연 무엇을 위해 뛰었을까? 사실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다. 유대인성과 동화의 열망 중 이 특정 시기에 어느 것이 더 그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이브라함스가 이때 자신의 유대인성을 지키기 위해서만 뛰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유대인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는 실제 에이브라함스의 일부 모습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던 유럽 사회에 살던 유대인들의 다양한 반응 중 일부만을 충실히 그리고 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영화, 소설 등에서 유대인의 이미지는 ‘타자’, ‘주변인’, ‘소외’ 등의 용어와 연관되어 설명되는 흐름이 있었고, 이 영화도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에이브라함스의 실제 모습은 이런 용어들만으로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그도 처음에는 경계인이었지만, 올림픽을 거치며 분명 영국인으로 받아들여졌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결승전에서 그를 달리게 했던 것을 “주변인으로서의 운명”만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고전적 해석인 것 같다. 어쩌면 그는 유대인이라는 숙명 극복이라는 수동적 동기보다 영국인이 되려는 적극적 동기를 가지고, 아니면 이미 자신을 영국인으로 생각하고 뛰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이 시기의 유대인에 대해 고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을까? 적어도 이 위대한 영화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것 같다.

서울대, romans81@hanmail.net